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에 관한 연구*

— 활동 수도회를 중심으로 —

조 정 미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Religious Habit of Korean Catholic Women's Religious Society — Focused on apostolic religious society —

Jung Mee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1996. 12. 5 접수)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change of habit in 'the Korean Catholic Women's Religious Society' and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during the period from 1888 up to now.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investigating a wide range of documents including those on museums of religious society, and by considering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on the present habit.

The religious habit changed as a result of the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influence of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habit are analyzed in terms of four different periods as follow;

(1) From the arrival of 'the Congregation of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to the year of Korean Independence.(1888-1945): The western style religious habit was introduced and settled later in Korea by the members of foreign religious society. The design of this religious habit might be originated from the medieval times.

(2) From the year of Korean Independence through before the Vatican Council II(1946-1965): Traditional habit style had been slowly modified. In this period, ancient style coexisted with the reformed style. Also ordinary clothing style were observed in the religious society.

(3) After the Vatican Council II(after 1965): 'Decree on the up-to-date renewal of religious life' of the Vatican Council II affected strongly the traditional habit design. This led to a change from the ancient habit design to practical, modern and hygienic one. In addition, the habit was suited to the time and place as well as to the need of the apostolate.

*본 연구는 가톨릭 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4) Currently Situation(1996): Mostly religious habit of Korea is maintaining the style changed after the Vatican Council II. Present style is very simplified than the traditional one. But many religious societies make efforts for keeping the symbolic meaning of religious habit. All over the world, religious societies allowing ordinary clothes, but most Korean women's religious societies still hold on religious habit.

I. 서 론

일반적 의미에서 수도 생활은 구도자가 삶의 의미를 절대자에게서 찾으려는 인간 생활의 본질적인 차원으로 "그리스도교 수도자는 극단적 회심을 의미하는 수도 생활 그자체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¹⁾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수도복을 '증거복'이라 부르기도 한다.

수도자가 되는 상징은 수도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졌고, 수도복 착용은 수도자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미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승이 수도복을 입혀 주는 것이었다²⁾. 이와 같이 수도복 착용의 의미는 세속을 떠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축성의 표시였는데 특히 은수자(隱修子)에게는 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확실한 봉헌을 의미했으며, 착복예식(着服禮式)은 서원예식(誓願禮式)중의 가장 오래된 의식으로 지금까지 계승되어오고 있다³⁾.

총체적으로 오늘날 수도복은 축성과 봉헌의 표지(수도 생활 쇄신에 관한 교령)¹⁷⁾와 청빈의 증거(교회법 669)로서 설명될 수 있으며, 수도복은 일반 복식과는 달리 단순한 표현욕이나 장식적 차원을 넘어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⁴⁾.

수도 생활이 시작된 초기의 수도복은 수도회가 창립되던 동시대 그 지역의 노동복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평상복 등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일반인들이 차츰 입지 않게 되자 수도복으로 탄생된 것인데 이는 수도자의 본질적 요소인 정결, 청빈, 순명을 따르기 위해 결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⁵⁾.

수도복은 타 복식에 비해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교회내의 여러 개혁운동, 사도직의 수행 범위의 확대, 자신들의 창립 정신으로 되

돌아가려는 각 수도회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여 하나의 제복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제복은 수도 생활이 질서를 갖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수도복이 제복화 되면서 초기 수도회의 전통과 구별되는 점은 지리적 장소와 그 지방의 습관에 맞는 '가난'과 '그 시대 사람에게 놀랍지 않는 사회의 통상 테두리'로부터 물러나서 하나의 특수 문화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⁶⁻⁸⁾.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교회 초창기부터 동정녀들과 파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국 종교사상 수도회적인 성격의 단체를 조직하여 선교와 자선적인 교회 사업의 여러 부분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어 왔지만⁹⁾ 서구의 초기 교회의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복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의 수도자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수도복을 착용한 것은 1888년 프랑스에 모원을 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프랑스 수녀들의 지도를 받던 한국인 지원자들이 수련기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서구식 수도복을 받아 착용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호주 등의 여러 외국 수도회가 들어왔고 한국인 수련자들은 자신이 입회한 수도회의 수도복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일제 치하를 지나 해방과 6·25의 와중에서도 많은 한국인 수도회가 생겨났으며, 서구 문명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유행이 급속히 변화하였지만, 이들의 복식은 축성의 표시와 가난의 증거로서 그들만의 독특한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도 생활의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도적 수행에 따른 시대적 요구는 수도복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급기야는 공동의 수도복을 벗는 사복 수도회가 탄생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가톨릭 교회의 복식에 관한 연구는 전례복(典例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도복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황(1985)10)과 황(1988)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들은 특정 한 수녀회의 수도복을 다루었거나,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수도복 전반에 관한

변천사를 다룬 논문으로써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현재 70여개에 달하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 고유의 특성에 따른 수도복의 변천을 설명하기에는 자료 제공이 부족하고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역사에 따른 수도복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자 수도회의 수도복 착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교회에서 수도복의 토착화(土着化)를 달성하고, 시대와 장소의 사정 및 다양한 사도직 임무 수행에 적합한 수도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수도 생활에는 여러 양식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도회의 성격을 크게 관상을 주로 하는 관상 수도회(*Instituta quae integre ad contemplation ordinantur*)와 여러 가지 사도직에 종사하고 있는 수도회(*Instituta variis apostolatus operibus dedita*)인 사도 활동의 수도회(이하 활동 수도회라 칭함), 관상 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사도 활동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사도적 관상 생활 수도회(이하 반 관상 수도회라 칭함)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이들 수도회들은 자기 자기 수도회 창립자의 고유한 은사(Charisma)에 따라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복을 착용하고 있다. 수도자 양성 과정은 수도회에 따라 그 기간과 명칭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유기 서원기, 종신 서원으로 이루어지며, 각 양성 단계에 따라 다른 복식을 착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도회의 특성에 따른 수도복 연구에 보다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선 사도직에 관여하고 있는 활동 수도회와 반 관상 수도회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도복을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련기에 들어서면서 착복예식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봉헌된 자의 표지로 착용하는 복식”으로 한정하고, 이에 준하는 수도복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현재 수도복 착용 형태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한국 가톨릭 주소록에 나와 있는 81

곳의 여자수도회 중 관상 수도회, 답변에 응하기를 원하지 않은 수도회, 주소가 변경되어 확인되지 않은 수도회를 제외한 총 56개의 활동 수도회와 반 관상 수도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수도회들의 자료도 가톨릭 홍보 자료나 서적들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수 있으면 가급적 통계 자료에 포함시키려 노력하였다.) 설문 내용은 수도회의 성격, 창립일 및 한국 진출일, 수행하는 사도직의 성격, 착용 수도복의 형태(디자인, 색깔, 직물), 현재 수도복의 결정 동기 및 착용 이유, 수도복의 변천 과정 및 이유, 사복 수도회 관한 질문 등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도복에 대한 도식화와 사진, 화보 등의 첨부를 요구하였다. 이차적으로 설문지 회수후 답변이 미비한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각 수도회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확인 수정하였다. 설문지 조사 및 방문 면담은 1996년 4월에서 1996년 9월까지에 걸쳐 실시하였다.

수도복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설문지 응답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문헌조사, 각 수도회의 박물관의 소장 자료, 각 수도회 설립 기념 화보집, 돌아가신 신부님을 기리는 회고록의 화보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I. 한국 가톨릭 여성 활동수도회의 수도복의 변천 과정과 오늘날의 착용 실태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들은 사회의 현대적 변화, 교회 내의 수도 생활 쇄신운동, 사도직 활동의 분야의 확대 등에 따라 수도복을 변화시켰다. 본 고에서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가 들어온 1888년부터 해방 전까지, 해방 이후부터 수도복 간소화의 커다란 계기가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변화 과정, 현재의 착용 실태 등의 4단계로 나누어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1. 샬트르 성 바오로수도회의 진출에서 해방전 까지(1888~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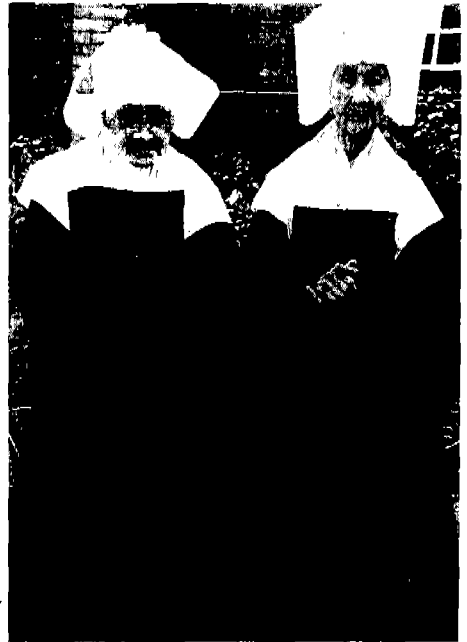
한국 여성 수도자들이 단체복 형태의 정식 수도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가 들어온 후 최초의 한국인 수련생들이 1893년 착

복 예식에 의하여 수도복을 착용한 것이¹¹⁾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는 프랑스에 본원을 둔 수도회로서 수도복은 창설 당시 프랑스 보오스(Beauce) 평야 일대의 부인들이 발일 할 때 입던 옷을 본 따서 그대로 수도복으로 착용한 것이었다. [사진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머리는 방도(Bandeau)와 셋때(Sette)로 싸매고 그 위에 코와프(Coiffe)를 썼다. 코르넷(Cornette)라고도 불렀던 이 코와프는 발일하는 부인들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도, 미사, 잠심(潛心)이 필요 할 때, 그리고 외출 시에도 코와프를 좌우로 내려 뜨려 침묵과 잠심에 도움이 되게 했다. 이 코와프는 둘러쌈과 수도원의 침묵을 의미했고, 머리에 둘러매는 방도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했다. 수도복은 쥬퐁(Jupon)과 카미솔(Camisole), 피슈(Fichue), 그리고 뻬에스(Piece)와 따블리에(Tablier)에 등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하고 거치장스러운 것이었다. 허리에서 발목까지 오는 쥬퐁은 두꺼운 사아지(serge)로 주름을 겹겹으로 잡았는데 상당한 무게의 옷이었다. 이 위에 상의만 따로 되어 있는 소매가 넓고 몸에 꼭 붙는 카미솔을 입었다. 피쉬는 삼각형 형태의 광목으로 밀변 쪽으로 세 개의 주름을 잡아 카미솔 위에 걸쳐 어깨를 가리었다. 뻬에스는 네모지게 검은 형질으로 앞가슴을 덮은 것이고, 그 위에 잔잔하게 주름을 잡아 만들어 입은 것이 따블리에인데 앞치마 같은 형태의 옷이었으며, 허리머는 십자고상(十字苦像)이 달린 묵주를 대용했다¹²⁾. 이어서 들어온 「성 베네딕도 수도회」는 독일에 본원을 둔 수도회로서 [사진 2]에서와 같이 주름이 많고 길며, 소매통이 넓은 수도복 위에 짧은 망토식의 옷인 펠레린(Pelerine)을 입었다. 머리에는 카페(Kappe)로 이마와 목, 귀를 가리고 머리수건인 슬라이어(Schleier)를 썼으며, 십자고상패를 목에 걸었다¹³⁾.

한국인 수도회로는 1932년 「메리놀 수녀회」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가, 1935년 남(Louis Deslandes)신부님의 지도 아래 「예수 성심 수녀회」, 1943년 「성가소비녀회」가 창설되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는 창설 초기부터 「메리놀 수녀회」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미국 수녀회의 수도복을 본뜬 원피스 위에 긴 망토가 있는 서구식 수도복을 착용하였다¹⁴⁾. 그러나 본당 활동에 적극적이던 동정녀 6

명이 동정 서원을 발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이 모체가 된 「예수 성심 시녀회」 [사진 1] [사진 2] [사



[사진 1] 한국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주년 기념 화보집, 1988.



[사진 2] 은혜의 60년; 부산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1991.

진 3]는 [사진 3]에서와 같이 당시 부녀자들이 입던 발목 위로 약간 올라간 길이의 치마에 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여름에는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겨울에는 상하의 모두 검은색을 착용하였다¹⁶⁾. 이들의 복식은 초기 교회 수도자들의 복식과 같이 사회의 통상 테두리 안에 있는 토착복(土着服)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살트르 성 바오로회」수녀들의 지도를 받기 시작한 1952년 이후부터는 서구식 수도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3] 예수 성심 시녀회
: 주님 손 안의 연장(1935~1995), 1995.

위와 같이 이 시기의 외국에서 진출한 수도회의 수도복들은 각 수도회가 창설된 시기인 중세나 17, 18세기의 유럽이나 미국의 평범한 농부나 가정 주부들의 복식이 약간 변형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들이며, 또한 목과 귀를 가리는 머리수건의 형식은 12, 13세기의 유럽 여성들의 머리쓰개인 워플(Wimple), 고르젯(Gorget), 바베트(Barbette)¹⁶⁾ 등의 형태를 유지한 것들이었다. 몇몇 한국인 수도회들이 창설되었지만은 우리 전통 복식의 특색을 따르기 보다는 창설시 도움을 받았던 수도회의 수도복을 본뜬 서구풍의 수도복을 착용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아직 가톨릭을 배우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따라서 한국인 스스로의 형식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수도복들은 거의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긴 길이로, 주름을 많이 잡아 품이 넓고 풍성한 형태였으며, 상하 여러 겹을 겹쳐 입거나 풍성한 원피스 위에 다

시 망토 풍의 상의를 착용하기도 하여 신체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소매단은 길어 언제든지 원하면 손을 가릴 수 있었다. 이러한 옷의 형태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⁷⁾. 머리는 귀와 목, 머리카락을 철저히 가리고 다시 머리수건을 쓴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머리수건은 넓고 길어 어깨를 가리며 허리까지 내려왔다. 색깔은 상복(喪服), 보속(補贖) 등을 나타내는 검은색이 대부분 이었고, 칼라, 머리 수건의 일부나 전체에 영혼의 순수성과 품행의 무후(無后)함을 상징하는 흰색¹⁸⁾을 사용하였다.

3. 해방 이후부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1946~1965)

일제하에서 한국 천주 교회는 8·15의 해방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보았다. 교황 비오 11세의 교피 지역화 원칙에 따라 1946년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가 설립된 것을 시발로 활발히 한국인 수녀회들이 설립되었고, 6·25 동란 이후에는 많은 외국 수도회들이 들어와 전후의 한국 사회를 부흥시키고 그리스도교화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¹⁹⁾.

오랜 민족의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한국 토착화를 위해 한국 순교 성인을 주보로하여 창설된 몇몇 수도회들에서는 지원기나 청원기또는 착복예식 때의 예복으로서 한복을 착용하였다. 특히 1946년에 창설된 「한국순교복자회」에서는 우리 고유문화의 보존의 의미에서 지원기와 청원기에는 한복을, 착복 예식때는 한국 고유의 전통 대례복에 죽두리를 1977년까지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수도회들도 착복예식 후부터 착용하는 공식 수도복은 서구식 형태를 착용하였다²⁰⁾. 「한국 순교 복자회」는 정식으로 수련기에 들어가면 [사진 4]와 같이 소매뿔이 넓고 주름이 풍성한 수녀복에 게이블 후드(Gable Hood)²¹⁾ 형태의 까삐탈레(capitale)가 있는 머리수건(살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의 청원기에 쓰는 브티 코와프에 검은 머리 수건을 쓴 형태와도 비슷)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침묵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수 성심 시녀회」도 정식으로 교구의 인가 받은 1952년 이후 [사진 5]와 같이 한복을 벗고 성의(聖衣; Scapulare; Scaplaire; Skapulier)를 착용하고 성 프란치스코 정신을 따르는 수도회의 특징인 흰 끈으로 매듭을 엮은 허리띠와 목주름 착용한 수도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구식 수도복의 착용은 시대



[사진 4] 순교의 꽃; 한국 순교복자회 창립 35주년 기념 화보집, 1981

적 사회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암울했던 일제 치하와 6·25 동란을 극복하고 나라 전체가 국가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주 생활 개선에 국민이 노력하던 시기였다. 의생활에서는 한복을 개량해서 입거나 한복을 벗고 활동에 편한 서구식 의복을 착용하였다. 서구적인 것이 현대화로 인식되던 이 시기에 신교 사업과 동시에 국민을 계몽하고 한국 사회를 발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목 활동을 시작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이 서구식 수도복의 착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 시기 초부터 점점 복잡해지고 현대화 되어가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수도회에 따라서는 중세 이후부터 지켜지던 수도복의 전통들이 현대에 맞게 조금씩 이나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는 복잡해가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1954년부터 피슈 대신 캠프(Guimpe)를 착용하게 되었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던 옷을 원피스로 바꾸어 간소화시키고, 성의를 착용하였다[사진 6]. 1962년에는 코와프대신 검은 뿔(Voile)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목주도 대응하지 않게 되었다. 1960년도부터는 사도직 봉사활동을 위하여 여름에 흰 수도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²²⁾. 「성 베네딕도 수도회」도 1963년 망토 형식의 벨레린 대신 성의를 입고 십자고상패 대신에 성 베네딕도 십자패를 목에 걸었다²³⁾.

또한 이 시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수도회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현대화된 수도복을 도입해 오기도 하였다.



[사진 5] 예수 성심 시녀회; 주님 손 안의 연장, 1995



[사진 6] 한국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주년 기념 화보집, 1988.

1962년 창설된 한국 여성 수도회 장상 연합회 창설 기념 사진인 [사진 7]에 의하면 「사랑의 시튼 수녀회」는 다른 수녀회의 머리수건과 다른 본넷풍의 단순한 모자



[사진 7] 한국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주년 기념 화보집, 1988.

를 착용하였으며,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는 타 수녀회들이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흰 이마가리개, 속모자, 긴 베일 형식의 머리수건 등을 착용한 것과는 달리 앞 머리카락과 귀가보이는 짧은 머리수건을 착용하였다. 또한 사복 수녀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는 수도복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움직임이 「메리놀 수녀회」가 1962년 수도복을 벗고 사복을 입는 것에 의해 현실화 된 것이다.

[사진 7]에서와 같이 이 시기는 중세풍의 수도복, 조금씩 현대에 맞게 개량된 수도복, 세속인의 복장을 따른 사복이 공존하면서, 전통과 현대로의 변화의 물결이 수도복 안에서 공존하였던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수도복의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논의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수도복의 변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회안의 쇠퇴를 도모하고, 그리스도교계의 일치를 추진하며, 현대인과의 대화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서 1962년에서 1965년에 걸쳐 개최되었다²⁴⁾. 이후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선포된 「수도 생활 쇠퇴 적용에 관한 교령 (Perfecte Caritatis)」은 수도복의 현대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수도 생활 쇠퇴 적용이란 “모든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원칙과 각 회의 창립 당시의 정신에 계속 돌아감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을 내포”²⁵⁾하는 것으

로, 여러 측면에서 모든 수도회들이 따라야 할 원칙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교령에 의하면 “수도자의 복장은 하느님께 축성된 봉헌된 자의 표징이기 때문에 간소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함과 동시에 단정해야만 한다. 또한 건강 유지에 알맞고 시대와 장소의 사정 및 임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²⁶⁾고 했다. 이는 수도자의 복장은 현대인의 심리적, 육체적 조건을 고려한 것이어 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복장은 옛날 창설 당시 복장과 비슷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현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세계 각지에서 같은 복장을 착용시키는 수도회가 있다면 이것은 장소의 사정을 무시한 것이고, 특히 그것이 서구적인 것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는 선교지에 맞는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수도회의 쇠퇴와 적응의 노력은 외적인 것으로 우선 수도복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도회들은 공의회 이후 수도복에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켜, 초기 복식을 현재 착용하고 있는 수도복으로 크게 변형시켜 교령에 따라 편리성, 위생성, 실용성을 살리고 거기다가 기후나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도록 고려하여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²⁸⁾.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는 1966년에서부터 발목 위로 올라간 길이의 짧은 치마에 V넥크라인의 원피스에 롤 칼라의 캠프를 착용한 대단히 간편하고 단순한 옷으로 바뀌었고 색깔도 지역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71년 수도회 총회 이후로, 구라파와 캐나다 등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수도복으로의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원피스, 투피스, 혹은 잠바식의 평복(平服)이 허용되고 있으나 한국 수도회에서는 수도복을 착용하고 있다²⁹⁾. 「성 베네딕도 수도회」도 1966년 수도회 쇠퇴와 적응의 원리에 따라 서원 수녀들도 머리수건은 수련 수녀와 같은 모양의 스티른반트(Stirnband)를 썼으며, 수도복의 주름 부분도 줄이고 길이도 짧게 하였다. 이후 머리수건은 ‘스티른 반트가 이마를 가리고 있어 비위생적이며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스티른 반트를 없애고 단순한 모양으로 바꾸어 1973년부터 수도가족 전체가 새 모양의 머리수건을 착용하였다³⁰⁾.

이와 같은 변화는 거의 모든 수도회에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면담, 문헌 조사에 의한 수도복 개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표 1>과 같다. 머리수건의 가장 큰 변

<표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수도복 변화 경향

머리수건	수도복 형태	수도복 종류
1. 이마가리개나 속모자가 없어짐 2. 수건길이가 짧아짐 3. 수건의 폭이 좁아짐 4. 머리부분이 통풍이 잘되고 귀도 더 잘들리게 변화 5. 머리수건 착용을 자유로 하는 수도회가 생김	1. 치마길이가 짧아짐 2. 전체적으로 품이 줄어들고 주름이 없어짐 3. 소매통과 길이가 줄어들음 4. 여밈의 위치가 변화	1. 망토가 없어짐 2. 성의가 없어짐 3. 투피스 형태가 생기면서 베스트나 테일러드 재킷형태도 착용하기 시작

기타 : 1. 사계절 동일 수도복에서 하복이나 춘추복이 추가됨(색깔을 바꿈, 하복지틀 사용)
 2. 공식 복장색은 규정하고 디자인은 다양하게 함
 3. 사복 수도회가 증가

화는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리는 이마가리개나 속 모자와 같은 머리수건의 부속물들이 위생상, 활동상 간소화되거나 생략되었으며, 폭을 넓게하여 어깨를 가리면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수건은 안선상이나 활동상 편하게 폭을 줄이고 짧게 변화시켰다. 중세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던 평면적 수도복의 형태는 원피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품과 주름을 많이 줄이고 현대적인 재단법을 사용한 여성복의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이러한 수도복의 변화는 옷감이 덜 들어 경제적이면서도 과거의 거추장스러운 형태보다 활동적이고, 여성다운 선이 더 드러나 보인다. 특히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치마 길이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수도복의 길이를 무릎과 발목 사이로 줄여 수녀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사목 활동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몇 수도회를 제외하고 거추장스러운 망토나 성의를 없애거나 단순화하여, 미사 시와 교회나 수도원의 특별한 행사시에만 착용하게 하였다.

초기 한국 수도회의 수도복의 색깔은 「갈멜 수도회」의 특유의 고통색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사계절 검은색을 착용하였고 덧댄 칼라나 머리수건 밑의 이마가리개나 속모자 등에만 흰색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름에 입는 하복이 생기면서 많은 수도회들이 검은색 수도복이 너무 더워 보인다는 여론 따라 기도와 침묵과 순결을 의미하는 흰색의 수도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흰색이 너무 더러움이 많이 타 조심스럽다는 이유에서, 의료 사도직을 수행하는 수녀들의 복장은 흰색을 유지하지만, 일반 사도직 수행 수녀들의

복장을 회색으로 다시 바꾸는경향이 있다. 신자들 속에서 활발한 사도직을 수행하려는 수도회의 목적에 따라 속새와 떨어짐과 보속을 의미하는 겨울 수도복의 검은색도 권위적이며 일반인이 가까이하기 힘들다는 여론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복청색, 곤색이나 회색으로 변화시키거나 창설시부터 이러한 색상을 선택하는 수도회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에 진출한 외국 수도회들은 본원이 위치한 지방의 정서에 맞는 색깔로 변형된 수도복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같은 색의 원단을 구할 수 없어 수도복의 색상을 한국 실정에 맞추어 다시 설정하는 시행 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한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은 사회의 현대화와 신자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 맞추어, 중세풍의 과거의 수도복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복식 스타일의 수도복으로 전환되었다.

4. 현대 한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 착용 실태 (1996년 현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5년 '수도 생활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이 발표된지 30년이 지난 현재, 한국 여성 수도자의 수도복 착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 56개 수도회중 89%에 달하는 50곳의 수도회가 단체복(uniform)의 성격을 가진 수도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복 수도회는 6곳에 불과했다.

수도복을 착용하는 50곳의 수도회를 대상으로 수도복의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분석

은 편의상 수도복과 머리수건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몇몇 수도회들이 수도복은 축성의 표시와 가난의 증거일뿐이지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다음 논의에서 수도회의 명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였다.

1) 수도복 형태

현 시기의 한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변화 형태를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유지하고 있었으며, 공의회 이후 급속히 간소화된 와중에서도 수도복의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몇몇 수도회의 외국의 본원에서는 수도복을 벗고 사복을 착용하였지만은 한국 신자들이 수도복 착용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한국 본원에서는 수도복 착용을 고수하는 수도회도 있었다.

수도복의 전체적인 형태나 재단 방식은 서양복의 원피스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으며, 한국적인 복식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수도복은 본 조사 대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조사 대상인 56개의 수도회중 6개의 수도회가 사복을 착용하였으므로, 50곳의 수도회의 수도복을 형태 별로 분류해 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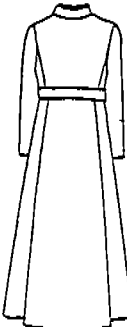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현재 한국 수도회에서 착용하고 있는 수도복의 형태는 (1) 브이 넥라인의 원피스(V neck line one piece dress)에 흰색 롤 칼라(roll collar)만을 덧댄 형태(안에 따로 블라우스를 입지 않음) - VOR형 (2) 라운드 넥라인 원피스(round neck line one piece dress)에 흰색 롤 칼라(rolle collar)를 덧댄 형태(원피스의 넥라인 형태가 보이지 않음) - OR형 (3) 스탠드 칼라(stand collar)나 변형된 스탠드 칼라의 원피스에 흰색 덧칼라 댄 형태 - OS형 (4) 칼라가 없거나 칼라가 있어도 흰색 덧칼라를 대지 않은 원피스 형태 - O형 (5) 점퍼스커트(jumper skirt)에 블라우스(blouse)를 착용한 형태 - JB형 (6)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투피스드레스(twopiece dress)를 입거나 계절에 따라 테일러드 재킷(tailored jacket)을 입은 형태(경우에 따라 베스트나 점퍼 스커트를 착용하기도 함) - T형등 크게 6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동복(冬服)과 하복(夏服)의 형태는 차이를 두지 않고 동복의 형태에서 색깔만을 바꾸거나 복지만 변화시켜 착용하고 있었다. 동복과 하복의 형태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곳은 6곳이었다. 형태별 수도복

의 착용 빈도를 정리한 <표 3>에 의하면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형태는 VOR형과 OR형으로 조사대상 수도회의 76%에 달하는 38곳(동복 2곳 포함)의 수도회가 이 형태를 착용하고 있었다. 특히 VOR 1형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수도회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인 1966년에 변화시킨 형태로 타 수도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세부적인 디테일로 볼 때 깊은 암홀 턱(Armhole Tuck)이 많이 사용되어져, 조사 대상 수도회의 90%에 달하는 45곳(동복 2곳과 하복 2곳 포함)의 수도복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깊은 암홀 턱은 가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주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상징하는 성의(聖衣)를 착용한 것과 같은 선의 효과를 주고 있었다. 또한 상체의 다트는 이 암홀 턱 속으로 삭제 시키거나 암홀 턱으로 덮여지게 재단되어 과거의 형태보다는 덜 하지만 여성다운 선이 드러나는 것이 절제되어 보인다. 암홀 턱이 사용되지 않은 수도복에서도 이와 느낌이 비슷한 어깨에서 시작되는 프린세스 라인을 주로 사용하여 여성다운 선을 억제 하면서 성의(聖衣)를 표현하려 하였다. 이외에도 간소화된 수도복 속에서도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OR형에서 흰 덧칼라의 둥근 롤 칼라는 성체의 원을 상징하며, VOR형에서 브이 넥라인의 V형태는 동정녀(the Vergin)의 V를 상징하였다. 또한 UOR 1의 형태를 착용하는 성모 승천 봉헌자회에서는 검은 가죽 허리 벨트를 매어 성 아오스딩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표시하였다.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가 착용한 박스형의 원피스에 허리 벨트를 한 O 1형은, 유일하게 칼라가 없는 형태로 칼라나 스탠드 칼라가 있는 타 수도회의 정돈된 느낌보다는 가장 캐주얼한 노동복의 느낌이 들었다.

수도복의 길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치마 길이가 짧아져 모든 활동 수도회의 수도복의 길이가 발목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치마 길이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이 있는 곳 중 가장 길게 입는 곳이 바닥에서 13cm, 가장 짧게 입는 곳이 바닥에서 23cm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무릎과 발목의 중간정도 길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매의 길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손을 가릴 정도의 길이에서 손목까지의 길이로 짧아졌으나, 2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수도회에서 여름에 반 소매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행이나

<표 2-1> 수도복 형태 분류

<p>VOR type</p> <p>형태 계절- 빈도</p>	 <p>VOR 1 사계절-5</p>	 <p>VOR 2 사계절-2</p>	 <p>VOR 3 사계절-1</p>	 <p>UOR 1 사계절-1</p>	
<p>OR type</p> <p>형태 계절- 빈도</p>	 <p>OR 1 사계절-6</p>	 <p>OR 2 사계절-1</p>	 <p>OR 3 사계절-1 겨울-1</p>	 <p>OR 4 사계절-18 겨울-1</p>	 <p>ORS 사계절-1 예복-4</p>
<p>OS type</p> <p>형태 계절- 빈도</p>	 <p>OS 1 사계절-1</p>	 <p>OS 2 사계절-1</p>	 <p>OS 3 사계절-1 겨울-1</p>	 <p>OS 4 사계절-1</p>	 <p>OS 사계절-1</p>

VOR: V neck line+one piece dress+roll collar

UOR: U neck line+one piece dress+roll collar

OR: one piece dress+roll co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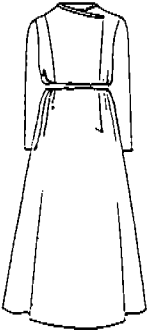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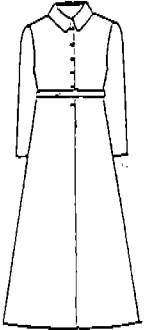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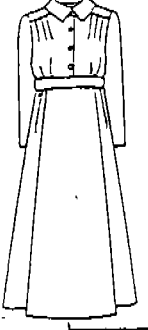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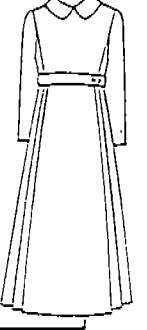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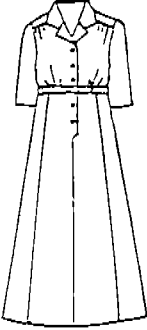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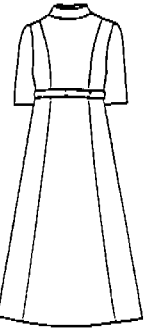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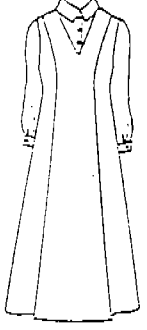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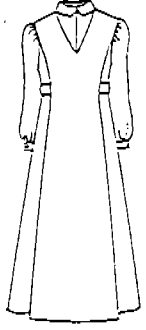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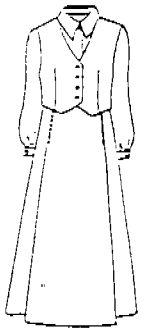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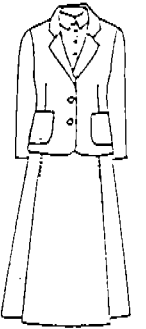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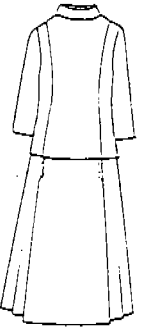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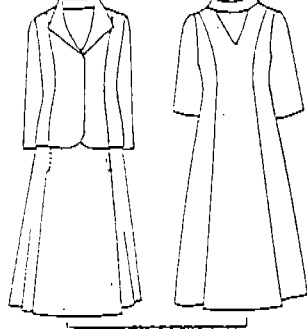
ORS: one piece dress+roll collar+scaplare

OS: one piece dress+stand collar

OSS: one piece dress+stand collar+scaplare

* VOR, OR, OS: 이 세형은 모두 흰색의 덧 칼라를 착용하는 형태임.

<표 2-2> 수도복 형태 분류

<p>O type</p> <p>형태 계절- 빈도</p>	 <p>O-1 사계절-1</p>	 <p>O-2 사계절-1</p>	 <p>O-31* 여름-1</p>	 <p>O-32* 여름-1</p>	 <p>O-51 여름-1</p>	 <p>O-52 여름-1</p>
<p>JB type</p> <p>형태 계절- 빈도</p>	 <p>JB-1 사계절-1</p>	 <p>JB-2 여름-1</p>				
<p>T type</p> <p>형태 계절- 빈도</p>	 <p>TV 여름-1</p>	 <p>TT-1 겨울-1</p>	 <p>T-1 겨울-1 여름-1</p>	 <p>TT-2** 겨울-1</p>		

O: one piece dress JB: jumper skirt+blouse
 T: two piece dress(blous+skirt) TT: two piece dress+tailored jacket TV: two piece dress+vest
 * O-31 O-32 : 한 수도회에서 2개의 디자인을 선택 함 * TT-2 : 재킷을 입은 모습과 벗은 모습

통회를 의미하거나, 청빈의 의미에서 긴소매는 사철 입을 수 있으므로, 수도회의 관습, 봉헌된 사람으로 노출을 금지, 사도적 활동의 특성(행려자 사목이므로 가능

한 한 노출을 피함)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외국에서 진출한 수도회의 경우 한국 수도회의 보편적인 모습에 따르기 위해 반소매를 착용하지 않

<표 3> 형태별 수도복 착용 분포표

n=50*(100%)

형태 계절	VOR type	OR type	OS type	O type	JB type	T type	합계
사계절	9(18%)	27(54%)	5(10%)	2(4%)	1(2%)	0(0%)	44(88%)
겨울	0(0%)	2(4%)	1(2%)	0(0%)	0(0%)	3(6%)	6(12%)
여름	0(0%)	0(0%)	0(0%)	3(6%)	1(2%)	2(4%)	

* 56곳의 조사대상 수도회에서 6곳의 사복 수도회를 제외한 숫자임.

는 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도복이 현대화되고 활동성과 실용성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형태를 구분하고 투피스 스타일과 점퍼스커트를 착용하는 수도회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본 조사에 의하면 「전교 가르멜회」의 수도복과 「사랑의 시몬회」의 동복(겉에 재킷을 또 착용) 「예수 그리스도회」의 하복이 JB형인 점퍼스커트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블라우스, 스커트의 형태를 착용하거나 이 위에 베스트나 재킷을 착용하는 형태인 T형은 「도움이신 마리아회」, 「사랑의 시몬 수녀회」, 「세례자 성 요한회」 등이 있었다. 원피스형 보다 이러한 분리형이 세탁과 관리에 용이하고, 활동성이 좋을 수도 있으나 옷벌수가 많아지므로 청빈과 검소의 원칙에 어긋나 꺼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많이 착용하던 망토나 성의는 거의 없어지고 몇몇 수도회에서는 정복 착용시나, 특별한 행사, 예식때만 착용하고 있었다. 수도복 안에 성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회(ORS, OSS형)는 본 조사 대상 수도회 중에서는 6곳이 있었으며, 특히 「스승의 예수제자회」는 수도회의 전통 관습에 따라 순번제 성체 조배 때에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중재의 의무를 뜻하는 푸른 망토와 흰 성의를 수도복 위에 착용하고 있었다.

겨울의 코트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20곳에 불과 하였으며, 이중 16곳이 검은색 긴 코트를 착용

하였다. 이외의 수도회에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스웨터, 반코트, 파카 등을 다양하게 착용하였다.

2) 수도복 색상

한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 색상은 <표 4>와 같이 9가지 색상으로 분류되었으며, 같은 회색 계통이라도 수도회나 사용 직물에 따라 톤(tone)에 차이가 있었으나 편의상 같은 계열로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 수도회중 무늬가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곳은 없었다.

<표 4>에 의하면 수도복은 검은색, 회색, 흰색의 무채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겨울에는 아직 많은 수도회가 검은색 수도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색이 때론 타인에게 위압감과 거리감을 준다는 여론들이 많으므로 몇몇 수도회에서 겨울 수도복의 색깔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겨울에도 흰색의 수도복을 착용하는 수도회는 성도미니교 선교회(베일은 검은색을 착용) 한곳으로서 사철 동일 수도복을 착용하는 수도회이다.

여름 수도복의 색상은 58%에 달하는 29곳의 수도회가 회색을 착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흰색을 많이 착용하였었다. 여름 수도복으로 검은 색을 착용하는 수도회는 없었으며, 여름 수도복 색으로 초기에는 흰색을 선호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더러움이 쉽게 타 실용적이지 못하고, 타인이 접근하기 힘들게 느낀다는 여론에 따라 의료 사도직을 제외하고, 회색이나 베이지색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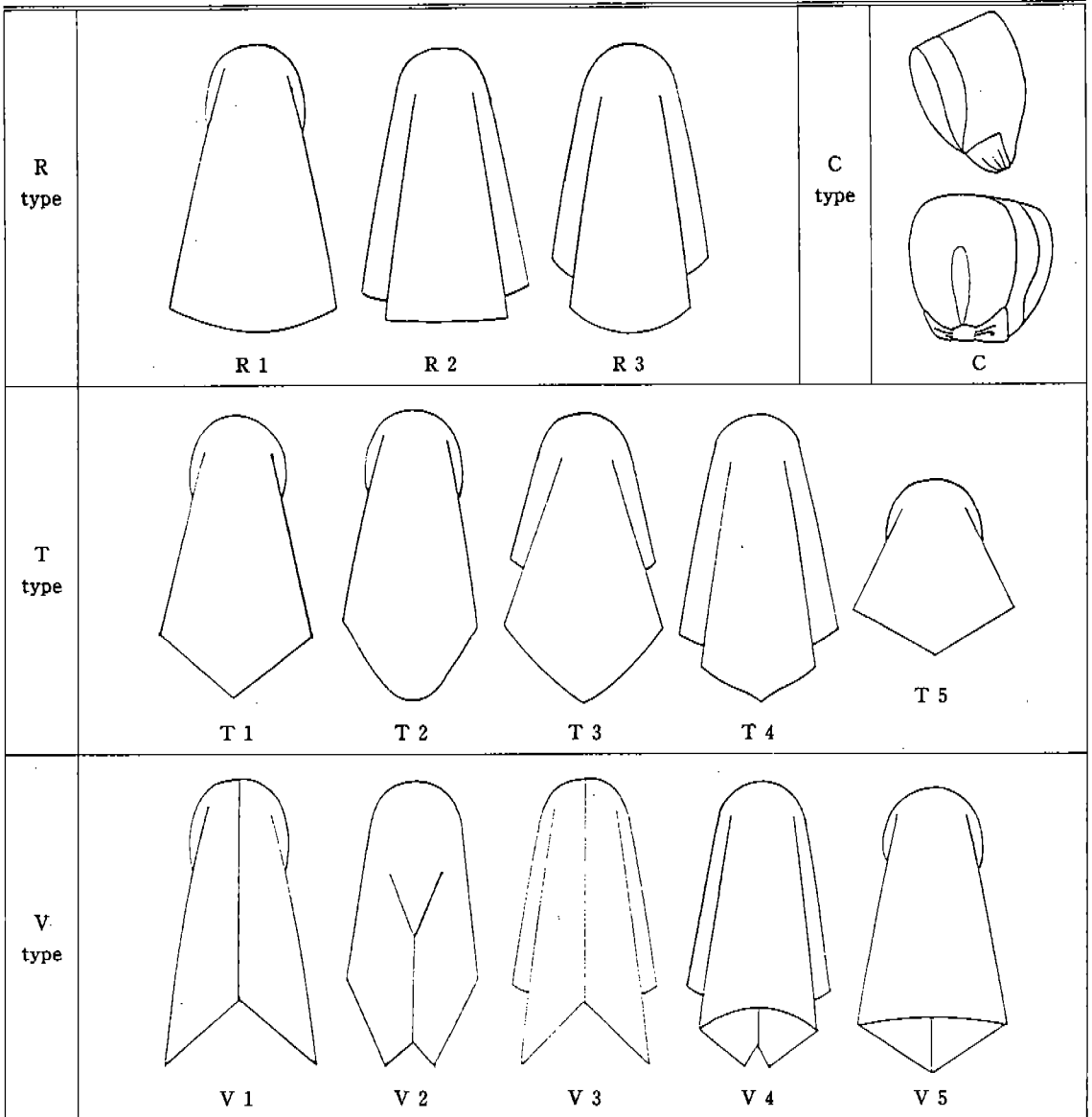
<표 4> 수도복 색상 분석

n=50*

색상 계절	검정색 계통	회색 계통	흰색 계통	베이지색 계통	고동색 계통	하늘색 계통	청회색 계통	군청색 계통	감색 계통
동절기	22(44%)	10(20%)	1(2%)	1(2%)	4(8%)	1(2%)	0(0%)	3(6%)	8(6%)
하절기	0(0%)	29(58%)	13(26%)	4(8%)	0(0%)	1(2%)	1(2%)	1(2%)	1(2%)

* 56곳의 조사 대상 수도회에서 6곳의 사복 수도회를 제외한 숫자임.

<표 5> 머리수건의 뒷 모습에 의한 형태 분류



R형 — round형, C형 — cap형, T형 — triangle형, V형 — V자 형

<표 6> 머리수건 색상 분석

n=50*

색상 계절	검정색 계통	회색 계통	흰색 계통	베이지색 계통	고동색 계통	하늘색 계통	청회색 계통	군청색 계통	감색 계통
등절기	26(52%)	9(18%)	1(2%)	0(0%)	3(6%)	3(6%)	0(0%)	3(6%)	5(10%)
하절기	3(6%)	14(28%)	25(50%)	3(6%)	0(0%)	1(2%)	1(2%)	2(4%)	1(2%)

* 56곳의 조사 대상 수도회에서 6곳의 사복 수도회를 제외한 숫자임.

수도복을 착용하는 수도회가 계속 늘고 있다.

또한 대비색은 조사 대상 수도회중 수도복에 대비색을 사용한 수도회의 모두인 44곳의 수도회에서 덧칼라나 브라우스에 흰색의 대비색을 사용하고 있었다.

3) 머리수건 형태 및 색상

머리수건(베일 : veil)은 로마 시대에 신부(新婦)가 오렌지색의 베일인 “플레이메움(flammeum)”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교회도 동정녀(童貞女)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해서 베일을 택했다³¹⁾. 이후 현재까지 베일은 축성된 여자의 독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²⁾.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수도회 50곳 중 캡 형태의모자를 착용하는 「사랑의 시튼 수녀회」, 긴 베일 형태가 아닌 삼각 머플러 모양의머리수건을 착용하는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머리수건의 착용여부를 수도자 자유 의지에 맡기는 「도움이신 마리아회」 등의 3곳을 제외하고는 수도복을 착용하는 47곳의 수도회에서 베일 형식의 머리수건을 착용하고 있었다.

머리수건의 착용 형식은 대부분의 활동 수도회들이 과거의 머리카락과 귀, 목 부위를 완전히 가리는 속모자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수건의 이마부분에 흰색 천으로 동정을 달거나 프라스틱이나 철사로 된 심, 또는 단순화된 속모자(베일 햇트 : veil hat)를 사용하여 머리수건을 고정시키고 이마부분의 형태를 단정히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머리수건이 앞이마를 덮게 쓰는 과거와는 달리 머리수건을 뒤로 넘겨써 앞머리가 보였으며, 귀도 약간은 밖으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머리수건을 착용하고 있었다. (과거의 머리카락이 한올이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은 것과는 달리 훨씬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베일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머리수건의 형태는 크게 이마를 가리는 앞 부위의 형태와 뒷 모습의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이마부분의 형태는 동정이나 플라스틱심의 여부,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이마를 감싸는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특정 형태로 분류하기는 어려웠다. 뒷모습은 <표 5>와 같이 (1) R형(round형)－끝이 둥근 형태 (2) T형(triangle형)－끝이 큰 삼각형을 이룸 (3) V형(v자형)－끝이 v자형이거나 역으로 파인 (4) C형(cap의 형태)의 4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착용되어 지고 있는 형태는 R형에 가까운 형태들이었다. 이 표에서는 각 머리수건의 형태에

따른 착용 수도회 빈도 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머리수건 끝 도련의 형태가 R형과 T형 중간으로 분류 기준을 세우기 모호한 것들이 많았으며, 또한 펼쳤을 때 같은 모양 이라도 쓰는 방법이나 움직임에 주름이 잡히는 형태에 차이가 있어서, 한 수도회에서도 약간씩 형태의 차이가 있는 곳도 있었으므로, 정확한 빈도수를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머리수건의 길이는 C형과 T-5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짧게 착용하는 수도회는 동길이의 반 정도, 길게 착용하는 곳은 허리선에 가까운 길이로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 수도회라도 일일이 사람의 키에 맞추어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착용하는 사람의 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몇몇 수도회에서는 베일의 모양에 수도복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대개 앞이마의 부분의 동정이나 뒤 도련의 둥근 모양은 성체의 원을 상징했고, 뒤 도련의 V자로 갈라지거나 홈이 파인 형태는 V neckline의 수도복에서와 같이 the Virgin의 V를 상징했다. 또한 특별히 「한국순교부자회」는 T-4의 형태에 끝 도련에 홍색 선을 둘러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으며, 「천주의 섭리 수도회」는 T-2의 형태로 삼각형은 수도회의 섭리를 상징하고 있었다.

머리수건의 색상은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색상을 사철 사용하는 몇몇 수도회를 제외하고는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수도복의 색에 맞추어 착용하였다. 따라서 검은색 머리수건을 착용하는 수도회가 <표 6>에 의하면 26곳으로 52%에 달했다. 그러나 여름에는 머리수건만 따로 흰색 수건을 착용하는 수도회도 많아서, 수도복에 관계없이 25곳의 수도회가 흰색 머리수건을 착용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수도복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가톨릭여성 수도회 수도복의 토착화 과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도복의 변천 과정을, 프랑스에서 「샬트로 성 바오로 수도회」가 들어온 1888년에서 해방 전까지를 1기, 해방 후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를 2기,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변화 과정

을 3기, 현 시기의 수도복 착용 실태를 4기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제 1기는 한국에 가톨릭이 들어오기 시작한 초기로서 수도복의 착용 규정이나 형태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본원 수도복의 형태를 그대로 착용하였다. 이 수도복들은 대부분이 길이가 발끝까지 오는 품이 넓고 주름이 풍성한 형태였으며, 위에 망토나 성의를 다시 착용하여 품의 실루엣을 완전히 감춘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30년대에 한국인에 의한 수녀회가 세워졌지만 역시 수도복은 설립시 도움을 준 외국 수도회의 수도복의 형태를 따른 것이었다.

제 2기는 해방 후부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까지의 시기로서, 그리스도교의 한국 토착화를 위해 많은 한국 수도회들이 창설되었지만 몇몇 수도회에서 지원이나 청원기 때나, 착복 예식 때의 예복으로만 한복을 착용하고, 착복예식 후부터 착용하는 공식 수도복은 대부분 서구식 형태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기존 수도복들을 점차로 간소화하고 단순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이며, 사복을 착용하는 수도회도 생기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 3기는 1965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선포된 '수도 생활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에 따라 수도복들이 현대적으로 전환된 수도복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수도복들은 편리성, 위생성, 실용성을 살리고 거기다 기후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길이가 짧아지고, 풍성한 주름을 없애고 품을 줄게하여, 현대적인 원피스 스타일로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머리, 목, 이마 등을 가리는 머리수건의 스타일은 불편한 속모자나 이마가리개가 없어진 좀 더 편리하고 위생적인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또한 사복 수도회의 수도 증가하였다.

제 4기는 1965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기로, 한국의 수도회들은 아직 수도복 착용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형태의 면에서 볼때 공의회 이후 변화 형태를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유지해 오고 있었다. 수도복은 거의 원피스 형태에 머리수건을 착용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으며, 겨울에는 검은색을 여름에는 회색의 수도복을 많이 착용하였다. 머리수건은 겨울에는 수도복 색에 맞추어 착용하였지만 여름에는 흰색의 수건을 많이 착용하였다. 또한 몇몇 수도회들에서는 다양한 사도적 활동 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도복을 현대의 변화에 맞추거나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형

태로 수도복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있어, 수도복의 형태를 원피스에서 투피스 형태로 바꾸거나 수도복 색깔도 좀더 일반인과 거리감 없는 색으로 바꾸려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은 현대의 사회·문화적 발전, 가톨릭 교회내의 수도 생활 쇄신 운동, 사도적 활동 분야의 확대 등에 따라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복은 수도회가 창설된 지역과 시기의 복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체복(uniform)화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서 들여온 서구풍의 수도복이 직접 우리에게 입혀진 경우이다. 8·15 해방과 6·25 동란 이후 몇몇 수도회들이 그리스도교의 한국 토착화와 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지만, 대부분이 서구식 수도복을 착용하였다. 이는 가난하고 암울했던 구습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이고 현대화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의생활에서도 서구적인 현대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사회 풍조와, 선교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구제 활동과 의료 봉사, 문맹 퇴치와, 민중 계몽에 앞장서야 했던 시대 상황이 서구식 수도복 착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 몇몇 수도회들은 남의 도움을 받는 수도회에서 탈피하여 여러 저개발 국가에 대한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고 외방 선교 활동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인 수도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얼마 안가 우리의 여성 수도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 예상되며, 세계 여성 수도회 속의 한국 수도회의 위상 또한 커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 맞추어 여성 수도자의 사도적 수행 영역 또한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 근로자, 노동 사목, 여성 사목(미혼모, 윤락), 도시 빈민 사목, 출판, 홍보사목등 과거와는 달리 사도적 활동의 내용이 전문적이며 진보적인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여성 수도자들의 위상 또한 더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한국 여성 수도회의 위상 변화, 사도적 확대에 따른 수도복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수도복 착용의 여부는 전적으로 각 수도회 스스로의 카리스마에 의한 구체적인 생활 방식에 의해 결정 될

문제이다. 그러나 활동 수도회들의 수도복 변화 방향은 첫째, 수도복 착용의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둘째 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다양한 사목 활동의 상황에 적합한 복식의 형태를 선택하고, 넷째,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과 한국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전 세계에 알리며, 다섯째, 한국 교회에서 여성 수도자의 위상을 확립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이덕근, *축성생활의 정체성—수도자 신분의 본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바오로의 트랙, 제76호,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출판부, 1994, p. 8.
- 2) RB1980, *수도승 양성과 서원*, 김요한 보스코 역, 코이노니아 10집, 1985, 겨울, p. 129.
- 3) G. Pelliccica, GRocca, *Abito Religioso: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I*, Roma, 1974, p. 51.
- 4) 황경순, *가톨릭 수도복의 변천과 상징적인 의미*,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 2.
- 5) 위의책, p. 79.
- 6) 위의책, p. 43.
- 7) G. Pelliccica, GRocca, *op. cit.*, p. 53.
- 8) 김마리로사역, *동방교회 수도승 생활의 기원들: 코이노니아 제 7 집*, 1983 가을, p. 8.
- 9) 김옥희, *韓國天主教女性史(I)*, 한국여자수도자 장상 연합회, 1983, p. 86.
- 10) 황문지, *가톨릭 한국교회의 복식고—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를 중심으로—*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 여성 문제 연구소, 여성문제 연구 제 14 집, 1985.
- 11)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85년사 편찬위원회, *바오로 들안의 애환 85년*, 가톨릭 출판사, 1973, pp. 658-659.
- 12) 위의책, pp. 665-668.
- 13)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60년사 편찬 위원회, *은혜의 60년—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 1995, pp. 402-403.
- 14)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박물관 자료
- 15) 예수 성심 시녀회, *주님 손안의 연장(1935-1995)*, 1996, pp. 18-25.
- 16) 김현숙,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고려원, 1995, pp. 179-180.
- 17) G. Pelliccica, GRocca, *Abito Religioso: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I*, Roma, 1974, p. 55.
- 18) Ibid.
- 19) 장상연합회 양성위원회 역음, *앞의 책*, 위의책, p. 53.
- 20) 서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순교의 꽃—창립 35주년 기념화보—*, 1981, pp. 44-53.
- 21) 김현숙, *앞의책*, p. 237.
- 22)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85년사 편찬 위원회, *앞의책*, pp. 667.
- 23)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60년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 p. 402.
- 24) H.V. Straelen, *제 2 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현석호역, 바오로출판사, 1987, p. 24.
- 25) <수도생활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 2항.
- 26) <수도생활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 17항.
- 27) H.V. 스트라렌 외, *현석호 옮김*, *앞의책*, p. 475.
- 28) 황경순, *앞의책*, p. 51.
- 29)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85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668.
- 30)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 60년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 p. 403.
- 31) G. Pelliccica, G. Rocca, *op. cit.*, I, p. 57.
- 32) Ibid, III, p. 236.